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글쓴이 고대영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제껏 그림책을 만드니까 사랑하는 아이들이 집에
그림책 편집자가 된 것을 무척이나 다행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길벗어린이 출판사에서 편집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린이 김영진

1972년에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독자와 만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책으로는 『아름은 배운 일명구리끼』가 있습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지하철을 타고서

고대영 글 | 김영진 그림

5월 1주 화요일 2009년 3월 25일 | 책의 지출금 | 박문로 김명아출판사 | 등록번호 제 10-1227호 | 등록일자 1995년 11월 6일
대형 전화 031-955-3251 | 팩스 331-955-3271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암리 출판로55길22지 511-2 | 홈페이지 www.gilbutkid.co.kr

글의 저작권 2009

그림의 저작권 2009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판매를 금합니다.

ISBN 80-5582-046-1, 77910

값 8,500 원

지하철을 타고서

글 · 고대영 | 그림 · 김영진



길벗어린이

“야! 같이 가. 엄마가 누나 말 잘 들으라고 했잖아!”
지원이가 소리쳐도 병관이는 발키 저 앞에 갑니다.
지원은 동생 병관이와 둘이서 할머니 댁에 갑니다.
할머니 댁에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엄마하고 함께 탄 적은 있지만,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지하철역을 향해 달리던 벵강이가 멈춰 섰습니다.
동물병원 앞입니다.

"누나, 우리도 강아지 키웠으면 좋겠다."

"엄마가 비염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할머니께 사 달라고 할까?"

"안 돼, 엄마한테 혼나."

들이는 한참을 머무르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갑니다.





“유치원생도 표 사야 돼요?”

“아니, 안 사도 된다.”

“그럼 한 장만 주세요.”

지현이가 가방에서 돈을 꺼내 표를 삽니다.



병권이는 자기가 표를 집어넣겠다고 때를 씁니다.

“안 돼, 잘못 넣으면 어떡하려고,”

지현이는 병권이 손을 뿌리치고 개표기에 표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표가 나오자 병권이 재빠르게 표를 낚아채고 씁니다.

"야! 표 잃어버리면 안 돼!"

"피이,"

입을 뻐죽 내밀고 병관이 뛰어갑니다.

"병관아! 넘어져, 조심해."

"누나! 빨리 와."

병관이 부르는 소리에 저원이라도 덩달아 뛰니다.



다행히 빈 자리가 많아 둘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권아, 똑바로 앉아.”
 “누나, 할머니 집까지 몇 정거장 가야 해?”
 “저거 보고 세어 봐.”
 지원이가 노선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병관이 열심히 역을 세는 동안,
 지하철은 어느새 땅 위로 나왔습니다.
 “누나, 네 차비 안 냈으니깐 나 줘.”
 병관은 동전을 건네받아 손에 꼭 쥐고,
 알 못 보는 아저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동전을 얹은 짚어넣고 돌아옵니다.



할머니 댁을 가려면 중간에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타야 합니다.
갈아탈 역을 지나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병환이가 꼬박꼬박 줍니다.
"자지 다, 명관아!"
지환이가 병환이를 흔들어 깨웁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www.gilbutkid.co.kr

지하철을 바꿔 봤습니다. 이제 안심입니다.

병환이는 이내 잠이 폭 들었습니다.

지원이도 마음이 놓이니까 졸음이 옵니다.

하지만 마음 놓고 잘 수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내릴 역을 지나칠 수 있으니까요.



"얘야, 어디까지 가니?"

지원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대흥역이요, 여기가 어디예요?"

"두 정거장 남았으니까, 그만 자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천결한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내릴 역을 지나칠 뻔했습니다.



지원은 병권을 깨웁니다.
 이번에는 잠이 깊이 들었는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원이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침내 병권이 열구리를 꼭 꼬집습니다.
 "왜 꼬집고 그래!"
 병권이 소리를 뱉 지르며 누나에게 대답합니다.
 "내려야 한단 말이야."
 지원이는 속이 상하지만 꼭 참고,
 병권을 달래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표를 내자마자 병권이 또 뛸니다.
“아, 같이 가.”
지원이도 병권이 뒤를 따라 뛸니다.
“너 거기 안 서? 나 엄마한테 아른다!”
소리쳐 보지만 병권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원이 혼과 썩썩거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병간이는 벌써 길 하나를 건넜습니다.
“너 정말 거기 안 서? 잡혀면 그만 안 돈다!”
하지만 병간이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꼭 붙잡고 오려고 했는데, 큰일입니다.



지원이가 할머니 댁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할머니께 인사를 합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엄마가 지원을 돌아봅니다.
"수고했다, 지원아. 동생 데리고 오느라고."
엄마 말씀에 지원이 입술이 뾰죽뾰죽합니다.
그러더니 그만 참았던 눈물이 뿜! 하고 터집니다.



지원이는 말없이 병관이 곁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병관이 엉덩이를 힘껏 내시킵니다.
으앙!
병관이 울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은 직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삿날입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

